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11

November 2006

| 이달의 이슈 |

서울의 세계화: 서울의 외국인 마을

김 은 미(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 경제포커스 |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

윤 형 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

최 경 규(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자치구경제이슈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윤 병 구(구로구청 환경경제국장)

| 경제동향 |

경기/고용/부동산/금융

| 부록 |

통계표

서울경제

2006.11

차 례

이달의 이슈	3	서울의 세계화: 서울의 외국인 마을 김은미(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경제포커스	11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4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 최경규(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자치구경제이슈	43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윤병구(구로구청 환경경제국장)
경제동향	55	요 약
	56	경 기
	63	고 용
	72	부동산
	81	금 융
부록	93	통계표

서울의 세계화: 서울의 외국인 마을들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emkim@ewha.ac.kr

서울에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거주하기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우리나라에 중국 사신들이 왕래하던 시절과, 그 후 기독교가 전파되던 19세기부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그 숫자가 크지는 않았고 심지어 중구 명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화교들의 마을도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 등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거나 외국인 마을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이 얼마 전까지 서울시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시 인구 100명당 1명꼴로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외국인의 거주인구 증가율이 한국인의 인구 증가율을 훨씬 앞서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외국인 인구는 1996년에 51,776명이던 것이 2006년 8월말 현재 161,868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50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는데 그 인구의 30%이상이 서울시에 살고 있으며, 이들의 출신국 역시 공식 집계된 자료를 통해서만 봐도 40여 개국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서울이 급격히 “세계화” 되어가고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사회학 박사, 석사 (미국 Brown 대학교, 사회학과), 문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원장;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사회학과 교수
- 「경제위기의 사회학: 개발국가의 전환과 기업집단 연결망」(2005, 서울대학교 출판부)

있으며, 서울은 특히 그 가운데서도 빠르게 다문화적인 “Global City” 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서울의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생겨난 것이 “외국인 마을” 들이다. 우리가 최근 매스컴을 통해 이름을 들어 알고 있는 서초구 반포4동에 프랑스인들이 모여 사는 “서래마을” 과 함께,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조선족들의 “엔번거리,” 동부이촌동에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Little Tokyo,” 매주 일요일 혜화동 성당 앞에 모이는 “필리핀 장터”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고향의 향수를 달래며, 외국에서 사는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외국인 마을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이외에도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꾸며가고 있는 이태원의 이슬람 거리, 몽고인들이 몽고식당과 여행사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몽고 마을, 터키인들과 이탈리아인들이 각기 만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터키마을과 이탈리아 마을, 인도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고 있는 인도 마을 등이 있다.

이 마을들의 발굴은 필자가 대학에서 국제학 개론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면서 시작되었다. 2002년 봄 새로 입학한 새내기 국제학부 학생들에게 “세계화” 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피부로 세계화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 서울에 이미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 마을에 착안을 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 조사연구를 시키면서 내심 바랐던 것은 외국을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또 서울에서 세계를 배울 수 있게 하고 싶었고, 또한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랐다. 더 나아가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서 서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되기를 바랐다.

2002년부터 다섯 학기 정도 같은 강의를 해 오면서 강의 내용은 조금씩 변화해 나갔지만 세계화 과제는 계속 되어왔다. 이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은 기대 이상이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제일 어려운 과제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도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다고도 말했다. 그 연구 결과물들이 쌓이고, 발굴한 서울의 외국인 마을이 12개에 이르자 2005년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과 본격적으로 외국인 마을에 대한 조사와 또한 다문화 교육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후자의 과제는 학생들이 외국인 마을을

연구하면서 스스로 개발한 연구과제였다. 학생들은 외국인 마을들을 발굴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의 폐쇄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폐쇄성을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외국의 문화적 다양성 교육과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서 서울에 이미 10여 개의 외국인 거주 마을과 문화 마을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지금도 한국 사회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단일민족주의”와 폐쇄성에 대해 놀라게 되었다.

서울에 생겨난 외국인 마을은 아마도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서울에 외국인들이, 특히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각기 하나의 마을을 형성할 정도로 그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이 명실 공히 “Global City”가 되어가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대도시들과 같이 문화적 다양성과 더불어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역동적인 도시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도시가 활기에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 도시에 모여드는 외국인들과 그들의 문화가 가져오는 활력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서울도 이러한 외국인 마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을 찾아오게 하는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들을 풀어나가다 보면 한국인들에게도 더욱 쾌적한,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서울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서울에서 발굴한 외국인 마을들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형태의 “마을”들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외국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주거형 외국인 마을 (Ethnic Communities)”이었다. 이는 특히 서래마을과 Little Tokyo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학교를 -예: 프랑스 학교와 일본 학교-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업지역이 함께 생겨난 경우이다. 주로 외국인 상사의 임원과 직원 또한 대사관의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역사도 해당 외국인 학교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서 두 번째로 찾아낸 외국인 마을의 유형은 우리가 “외국인 문화 마을 (Cultural Communities)”로 명명한 서울 여기저기에 생겨나고 있는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마을들이다. 우리가 “마을”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비록 주거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마을은 아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정기적이고 또한 장기적

으로 모여서 그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고 상권을 형성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주로 한국 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이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그 인구수가 아직 많지 않아서 학교 등 주요 기관이 설립되지 않아서 거주 중심지로까지 발전하지 않은 마을들이었다.

서울의 외국인 마을 연구의 두 번째의 의미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 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생활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단군이래로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서울의 외국인 거주 역사를 보거나, 지난 10년간 급속히 증가한 외국인 거주자나,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 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족과 혼혈 아동을 볼 때, 이러한 “단일민족” 의식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기 보다는 한국인의 정서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우리 사회 전반의 여러 제도에 깔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도시는 급속도로 다문화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서울이나 각 구청의 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이러한 도시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다문화적으로 사고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기엔 미흡한 면이 많다.

우리는 때로는 외국의 새로운 문물이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는 완고하면서도 일부 선진국의 물질문명은 선호하는 모순을 보여 왔으며, 특정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 매우 편견적인 태도와 사고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미국인이나 유럽의 백인들에게는 무척 호의적이지만 동남아인들이나 흑인들은 멸시하는 인종차별의 이중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또한 외국인의 직업과도 관련되어 외국 대사나 외국 상사의 주재원에게는 호의적이지만 외국인 연수생이나 노동자에게는 너그럽지 못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 하인즈 워드의 방한으로 정부, 매스컴, 국민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된 “혼혈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차별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모색도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정 외국인에 대한 차별, 혼혈아동에 대한 편견, 또 우리의 연구를 통해서 만난 여러 외국인들로부터 들은 “서울 사는 어려움”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은 한국이나 서울이 외국인들이 쉽사리 정착해서 한국인들과 무리 없이 섞여서, 동화해서 살기 힘든 곳이라는 점이다.

서울처럼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 안에서 문화적·민족적·국가적 다양성에 대해 무지하고, 단일민족 의식에 기초한 편견과 차별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사회 문제화 될 경우 최근 프랑스와 호주에서 있었던 일련의 인종간·민족간 갈등 표출이 한국 사회에서도 가시화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서울시에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서울의 외국인 마을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다. “세계 일류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은 세계의 문화와 세계인이 함께 사는 활기 넘치는 도시로서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외국인들이 (한국인은 물론이고) 살고 싶은 초일류 국제 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외국의 주요 대도시의 경우 China Town, Little Italy 등이 주요 관광지가 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외국인 집중 거주/문화 지역이 관광 자원으로도 그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세계 일류도시를 꿈꾸는 서울도 이와 같이 외국인 마을을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 제안은 다문화 교육과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이다. 서울이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서 급속히 다문화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으나, 그에 맞는 시민의식이나 제도가 미비한 것이 큰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올바른 다문화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위에서 제안한 외국인 마을들을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의 장(場)으로 활용하면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이 대한민국만의 특별시가 아닌 명실 공히 다민족간의 화합·평화·공동번영을 위한 “한국적 세계화”의 청사진을 보여 줄 수 있는, 외형만이 아니라 내면도 세계의 특별시가 되기를 꿈꿔본다. **SDI**